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5): 목회자와 교회가 잃어버린 것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았더니, 지난 10년 동안 위선자(hypocrite)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후기 산업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도 물론 일조를 하였습니...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뽑히곤 했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지는 칭송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960년-1990년대 초까지는 교회로 몰려드는 새 신자들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급성장을 경험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물 모델이 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뜨거운 기도의 울부짖음이 살아있었고, 보통 4-5일에서 일주일씩 계속되는 부흥사경회는 자리가 모자라서 보조자들을 갖다 놓아야 할 정도로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면서 엄청난 흡인력을 갖고 영혼의 수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타락과 균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세기의 위대한 교회 부흥과 성장은 멈추어지고 21세기 들어서는 정체기를 거쳐서 급속도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논조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요한 사도는 빛의 삶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마지막 주님의 계시를 환상 속에 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메세지 속에 오늘 날 우리 21세기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점과 같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교인들로 가득차 버렸습니다. 둘째,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려 하지 않은 채, 형통과 부요의 상급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셋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 만담과 예화로 가득 찬 20분미만의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싸울 힘마저 없는 나약하고 타협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경건함을 버리고 스스로 세속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그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풍요와 사치에 빠져서 물질의 노예가 된 목회자부터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가득 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며,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종으로써 성경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바티칸, IS 테러 공격 위협으로 비상경계 중!

로이터, 이탈리아의 대 무슬림 세력 확장 보도

지난해 8월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교황청을 위협했을 때 이탈리아는 어깨를 으쓱하기만 했다. IS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표적으로 한다는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교황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교황은 보란 듯이 바티칸 경호 책임을 맡은 스위스 근위대장을 해임하고, 고집스럽게 방탄 전용차 사용을 거부하며 유럽 대륙 이곳저곳을 거침없이 돌아다녔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바티칸은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가톨릭통신사에 말했다. 이탈리

아 당국도 무관심한 듯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IS의 위협을 이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 캐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황청까지도 IS가 손쉽게 테러 목표로 설정하게 된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 문제, 즉 이탈리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 이민세력의 확산을 경고한다(Vatican on Alert for Terror Attack, but Sees No Specific Plots).

착하는 불법 이주자가 매일 500명에 이른다. 일부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수용원을 초과해서 탄약은 배 여러 척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수천 명이 사망했다.

그동안 이탈리아 해군은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우리 바다라는 뜻)으로 이름 붙인 해상 난민 구조작업으로 그들을 위한 배에서 구조해 이탈리아 내부의 수용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지난해 그들이 구조한 난민은 17만 명에 이르렀다. 2013년보다 66%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탈리아는 '마레 노스트룸'을 중단했다. 한 달에 약 1000만 달러(약 110억원)라는 막대한 비용과 난민의 과잉 유입을 우려한 결과다. 또 이탈리아는 EU가 구조작업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레 노스트룸'이 중단된 이후 난민 수백 명이 이탈리아로 건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0월 IS가 발행하는 잡지 다비크(Dabiq)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IS의 검은 깃발이 휘날리는 합성사진을 표지에 실었다. '실패한 십자군 운동(The Failed Crusade)'이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는 가톨릭과의 전쟁을 촉구



재정 이유 '마레 노스트룸' 해상 난민구조 작업 중단 특수요원 4800명 추가 투입...테러보다 이민 더 우려

했다. 지난 2월 초 IS는 리비아 해변에서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하는 모습을 담은 끔찍한 동영상 공개했다. 참수 장소인 리비아의 북부 해안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 남부와 마주 보고 있다. 그 비디오에서 한 IS 조직원은 이탈리아를 향해 칼을 겨누며 "우리는 알라와 하라크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약속에 따라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말에는 IS 관련 트위터 계정에서 동성애자들을 곧 '이탈리아의 피자의 사람'(Leaning tower of Pizza)에 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황급히 그런 위협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이슬람 참수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파리의 주간지 샤흐리 엠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 이탈리아와 알바니아는 합동 테러 대응단을 설립해 경찰을 훈련하고 테러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또 이탈리아 보안기관은 전국에 특수요원 5000명을 배치했고 앞으로 4800명을 추가 투입할 계

획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월 11일 테러리스트 처벌에 관한 새로운 포고령을 통과시켰다. 지하디스트를 모집하는 테러리스트에게 최고 6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여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보전문가와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IS가 이미 자국에 침투했는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성전에 참여한 지하디스트 수십 명이 이탈리아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리비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난민 수천 명 사이에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리비아인이고 나머지는 이라크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리비아를 통해 탈출하려는 사람들이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래 군벌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혼돈에 빠졌다. 군벌 중 일부는 IS와 연계돼 있다.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리비아는

영토가 넓고 범죄자가 무너진 상태다. 따라서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는 이웃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대처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머지않아 그럴 기회마저 사라질 위험이 크다."

지난 4년 동안 리비아 내전과 그에 따른 난민 탈출로 유럽연합(EU), 특히 이탈리아가 몸살을 앓았다.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리비아는 이탈리아 최남단 캄페두사섬에서 약 175km, 시칠리아 남쪽 해안에서 약 483km 떨어져 있다. 아프리카에서 배로 그 섬들에 도

가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난민 사이에 숨은 테러리스트나 IS 동조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사실 이탈리아는 IS의 주요 적대국이 아니다. 그러나 리비아 동영상에서 IS조직원들이 말했듯이 이탈리아는 '십자가의 피로 서명된 국가'(nation signed with the blood of the cross)로서 테러리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인과 그곳의 시민인을 살해하려는 지하디스트의 광기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음악대학(원) 학생모집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모집학과 및 전공 Degree Programs

Majors: Piano,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Instruments, Church Music, CCM
학사학위과정 BA in Music (129 credit hours)
석사학위과정 MA in Music (48 credit hours)
박사학위과정 Doctor of Music (48 credit hour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4. 전공별 실기교수의 지도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s
교수: Dr. Dae Gweon Kim
강의일자: June 9-11, 2015
강의장소: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Apply Now!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aise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his praise in the assembly of his faithful people
(Ps 149:1)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음악동문들

구도원박사(전, 숙대음대학장), 권영남박사(중부대예술대학장), 권신희박사, 권복희(필계), 권숙영박사(미국), 권신영박사(텍사스), 권종욱박사(경성대), 권종원박사(Midwest), 김경성박사, 김중백박사(군산영광고), 김철수박사(안남대), 권영민박사(베네데), 권종규박사(전, 안국예술고교(대표)), 김형석박사(전, 안양대), 박노현박사(중문고교음악과), 박성규박사(텍사스), 박성민박사(전주대), 박진문박사(직곡기), 박원용(전, 영광고), 박영근박사(경북도립), 박연지박사(전, 숙대음대), 서병오박사(LA), 손은주박사, 손영은박사(영국), 김지성박사(서울신대), 양기철박사(신성대), 엄태영박사(경남대), 어용은박사(Midwest 명예교수), 윤성보박사(전, 동도교회지위자), 윤영원박사(전, 중앙대음악과), 윤항기(예술총장), 이기철(텍사스), 이관섭박사(전, 배화대), 이성은박사(연동교회음악과), 이주원박사(토론토), 이원용박사(경신고), 이은숙박사(정신), 이원관박사(대전고교음악과), 이종구박사(경성대), 이계원박사(세계음악학), 이종원박사(중경복신대) 임미진박사, 임종영박사(백제대예술대학) 임원정박사, 우세문박사(진안전성교회음악과), 조종모박사(영광고), 진남표박사(안양정신), 진인재박사(전, 안세대), 진희준박사(전, 안국예술고교(대표)), 정운태박사, 조유근박사(뉴욕), 조용관(안서대예술대학장), 주광식박사(웨모고, 서울교서합창단장), 차정식박사, 최은영박사, 최광덕박사(중대부고, 살림승악), 최은희박사(안양대), 최연경박사(경운대), 홍미원박사(Midwest), 황병덕박사(전, 연세음대학장), 황영경박사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TGC, 케빈 디영 목사의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상처 소개

교인 수는 많지 않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비전이자, 목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목회자의 영적 상태와 건강을 점검하면서, 평신도 지도자와의 긴밀하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든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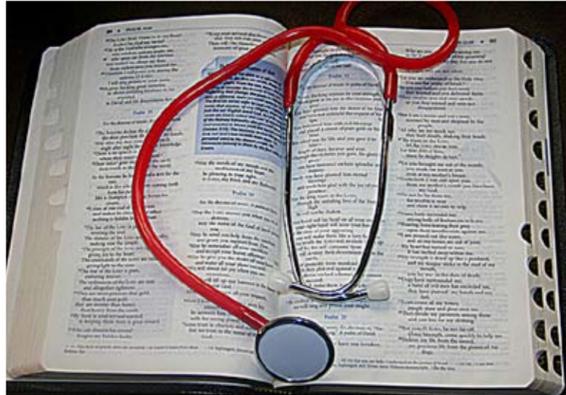
미시간주립대학 이웃인 이스트 렌스에서 목회

(University Reformed Church)하고 있는 케빈 디영(Kevin DeYoung) 목사는 떠오르는 차세대 복음주의 진영(theogospelcoalition.org, TGC)의 리더 중의 하나다. 디영 목사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상처들을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말해준다(9 MARKS OF AN UNHEALTHY CHURCH).

의사 결정에 병목 현상이 있다 교회공동체의 주요한 결정들에 대해 병목 현상 즉 원활하고 용이하게 되지 않는 것은 회중의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교회 결정에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 결정한다고 하면, 교회는 절대로 투표를 한 교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사역자 청빙에서 예배당 바닥 카페 색상 결정까지 모든 교인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목 현상은 목회자의 잘못이다.

목회자의 개인적 허거나 감독 없이,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결국은 평신도 리더십에 결정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결정해나가야 한다.

설교가 점점 이상하게 불규칙적



설교의 주제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내용들이 많다. 미시간 주립대학 주변에서 교회로 찾아오는 교인들은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죄와 구원, 하나님의 영광, 성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종말이나 사회적 쟁점들 또는 재정적 청지기 직분, 결혼이나 양육 등에 대해서 듣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죄악,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설교주제는 복음의 핵심이어야 담임목사가 교회사역 즐기며 사모와 화목해야 재정 불투명, 문제 비공개, 의사결정에 병목현상은 문제

교회 사역자가 사역을 즐기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일은 업앤다운(up & down)이 있다. 또 모든 사무실에는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를 지켜본다. 만약 우리가 항상 시무룩하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고, 마치 강제로 끌려와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가오지도 않고, 마치 친구처럼 사귀어도 없고 말도 섞지 않는다.

담임 목회자와 사모가 화목하지 않다

목회자 가정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화목과 협조는 일반 가정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 부부는 때로는 규칙적으로 일들을 나누면서 살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슴은 차갑게 식은 채로 사랑 없이 기능적으로 영위되는 열정이 사라진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교인들이 거의 담임 목회자와 사모에게 "당신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들은 많은 갈등들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이나 결혼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들 역시 생존하기가 힘들게 된다.

교인들 대부분이 어떻게 재정이 운용되는지 모른다

교회들은 재정을 서로 다르게 다룬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재정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지체롭지 못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 재정의 1달러에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부 핵심 교인들의 손에서 재정 문제가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교인들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담임목회자의 사례를 마치 국가 안보상의 기밀 사항처럼 다루지 말라!

교회 리더십이 절대로 변하지 않거나 너무 자주 변한다

두 가지 패턴 역시 교회공동체에 경고 신호다. 한편으로, 리더십에 절대로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된

다. 만약 교회의 장로들, 집사들, 소그룹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마치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와 동일하다면, 정말 큰 문제다. 아마도 나이 든 리더들은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리더들은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어떤 기관에는 20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장로들이 다른 사역 기간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평신도 리더들이 한 번 이상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거나, 자원봉사자들 역시 단 한 번의 자원봉사로 끝나게 되면 그 교회공동체의 문화는 너무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교회 평신도 출신 사역자나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좋은 설교는 젊은이로 하여금 선교지로 나아가거나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영감을 준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해마다 사역자들을 배출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중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으로 진행된다

강단에서의 설교 행태 변화는 다양하다. 담임 목회자가 더 이상 부교역자나 외부 강사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강단을 자주 비우고 부교역자나 외부 강사로 대처할 수도 있다. 설교가 점점 더 독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동일한 주제를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이미 만들어진 설교 가이드에 따라, 아니면 몇 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린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에는 항상 내려오는 관습적인 법칙이 있다: 바로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는 교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교회공동체의 많은 문제들은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아는 문제를 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흑백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문제점이 공개되어야 심하게 손상돼가고 있는 공동체의 균열이 응급처치 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용단의 대부분은 중동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숙련된 장인의 지도 아래 남자와 어린 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한 장 한 장 만들어낸다고 한다.

대개 그 용단은 밀 부분에서 위로 짜 올라가는데 사람이 판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리 정해 놓은 무늬와 다른 빛깔이 나오는 수가 더러 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지도하던 장인은 용단 전체의 빛깔을 맞추기 위해 잘못 짜여진 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간 빛깔이 전체 무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성공작으로 만들기 위해 멋진 조화를 이룩해 나가는 사람들이며 개인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예지를 지닌 사람들이다.

실수란 용단 만드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길고 짧은 과오이며 착오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내 실수는 과소평가하고 남의 실수는 과대 포장한다든지 한번 실수 때문에 삶을 포기한다든지 죄죄한다든지 하는 등의 자세는 값비싼 용단을 짜내는 장인의 습기는 아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호사자들에게 포위된 채 성전 뜰에 엮드린 한 여인이 있었다. 지난밤에 저지른 불륜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이 노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온 여인이었다.

잠시 후면 그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 밖으로 끌려 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에워싼 채 씩씩거리고 서 있는 남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긴박한 사태에 돌파구를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순간의 함락 때문에 즉결처형을 받게 된 여인의 모습이고, 둘째는 자신들의 죄는 뒤로 감춘 채 저마다 돌을 쥐고 서 있는 철면피한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셋째는 용서와 경고의 장을 펴신 주님의 모습이다.

위와 같은 장면은 때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과오 때문에 그를 매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과, 실수나 과오가 용납된다는 이유로 그 잘못을 되풀이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 그것은 가려진 갈대이며, 나무끼는 가랑잎이며, 떨어뜨리면 깨지는 질그릇이다. 제아무리 현대 문명의 금자탑을 이룩했다고 호언하는 현대인의 높고 높은 곳대도 실낱같은 힘에 불과하다. 한 여인의 비극적 종말을 용서와 희망과 새 출발로 바꾸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넓은 뜻은 오늘 우리네 삶의 길목에도 넘쳐나야 한다. 다만 우리네끼리 용졸하고 치졸하고 편협할 뿐이다.

교회는 주님의 품과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품 안에서 평화를 얻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삭막한 길목 곳곳에 장미를 심고, 라일락을 심고, 코스모스를 심고, 동백을 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동산으로, 전원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낙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March 16-20 (3월 16일-20일)
PM 8800 Reprogramming the Church for Global Impact
Dr. Bruce Dipple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전화위복

30여 년 전 목표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부임한 교회에 목표향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있는 참은 아름다운 섬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그곳이 섬인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소가 목표시 총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섬은 꽤 넓은 편이었지만 교통수단은 자전거와 경운기가 전부였습니다. 후에 총무동 1호

차를 교회에서 갖게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가는 곳에 있는 참은 아름다운 섬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그곳이 섬인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소가 목표시 총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섬은 꽤 넓은 편이었지만 교통수단은 자전거와 경운기가 전부였습니다. 후에 총무동 1호

장로님께서 장남 목표에 나가 멋진 자전거를 사다주셨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밤이 늦도록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또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한 날 좁은 시골 길 사이를 지나다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구도를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지자 급하게 배를 수소문하여 목표시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CT 촬영과 여러 검사를 통해 뇌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시 후에 이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이의 몸을 잘 관찰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매일 아이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루는 아이와 장난을 하다가 우연히 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 내외는 아이를 데리고 목표 시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의사는 속히 아이를 데리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허둥지

둥 광주 조선대학 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아들이 턱 부상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는 왼쪽 턱 위로부터 어금니 부분 잇몸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 종양이 생겨서 살을 파먹고 턱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주 종양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아이의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턱이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번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박 3일 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피곤을 무릅쓰고 주신 귀한 말씀은 모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랜드캐년의 아름답고도 웅장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한 모

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투어를 마치고 귀가 길에 뜻하지 않게 일행 중 한분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동료 목사님들에 의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 뇌에 종양 같은 물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마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숙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함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타고 가시던 승용차가 큰 트럭에게 받쳐 그 압력으로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차와 부딪치게 되었고 목사님의 차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 외상도 입지 않아 집으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코피가 났지만 자주 있는 일이라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후배 목사의 강력한 권고의 전화를 받고 주치의

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치의의 권유로 뇌수술의 일인자인 의사를 소개 받아 베버리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不幸)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努力)과 강인(強韌)한 의지(意志)로 힘쓰면 불행(不幸)을 행복(幸福)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금에 한인사회 소식들은 그리 밝지 못한 듯합니다. 자바시장, 유학비자, 성매매, 거기다 미 대사 테러사건까지 이런 저런 일들은 우리를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하게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밝은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전화위복의 은총이 한인사회와 교포들 위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람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저주를 속량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와 저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모든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 사람을 받고 저주를 속량 받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대속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속량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베소서 2장 8-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

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이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

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꼭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가장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 예수님이 누구인지 꼭바로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2.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

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1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

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主)'라고 불렀습니다. '주(主)'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나 이슬람과 같은 곳에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主)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 같은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 은 복음입니다. (14면으로 계속)

구원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10장 9-13절)

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

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2.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主)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

를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 같은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14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는 (PCUSA 교단) 창립 45년의 전통과 더불어 1세와 2세교육의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공동체의 회복,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헌신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 이상의목회경험(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이중언어가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인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3부 (목회자 2명/평신도 1명)
6. 최근 6개월내 설교 3회분 (영어1회포함-CD/DVD)

제출마감일: 2015년 4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청빙위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Email: office@kupc.org

기타: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Tel: 773-283-3377 www.kupc.org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다. IS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대학살을 감행한다.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의 서울 한 북관에서 미국 주한대사에게 테러를 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온 세계가 두려움의 계절 속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미국에 사는 십대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조사해보니 2005년 갤럽 조사는 청소년들의 10가지 두려움들은 테러공격, 거미, 죽음, 실패의 위험, 전쟁, 범죄나 강도, 외로움, 미래, 핵전쟁의 순서이었다. Bill Tancer는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표

현'을 조사해본 결과 2008년도의 발행한 그의 저서에서 순서를 비행공포, 고소공포, 광대, 친밀감, 죽음, 거부, 사람, 뱀, 실패, 운전 공포의 순서라고 밝혔다. 두려움의 강도는 다양하여서 두려움에 질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것까지 다양하다. 현대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이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다가오는 위협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공포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적인 불안정한 변화이다. 두려움은 본능적인 면이 있다. 두려움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있다. 두려움은 경보조작으로 압박한 위협을 알려주고 미리 대비하게도 한다. 두려움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도피하거나, 대항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숨어서 두려워 떨게 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이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도 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면 더욱 더 조심할 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두려움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

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파멸하게 한다. 나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잠3:25, 시46:3).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어야 할 진리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사탄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힌다. 먼저, 두려움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악인은 자기의 두려움으로 멸망을 당한다(잠28:1). 하지만 두려움이 의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다.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두려워하면 성도가 힘을

잃은 10년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했다. 다윗은 위기와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사41:10).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심에도 내가 왜 두려움을 경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허락하신다. 오직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에만 허락하신다(고전 10:13).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가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 줌으로 우리로 무기력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적인 무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효과적인 무기는 사랑이다(요일 4:18).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향해 열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ispcc0316@gmail.com

Q: 저는 나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이 현재 LA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해사본이 기독교적인 문서라는 것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심 집사

A: 사해사본은 이제껏 발견된 성경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로서 쿠파문서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서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북서쪽 해변에 있는 키르벳 쿠파란 근처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고대문서를 말합니다. 1947년 5월에 양치는 베드윈 족속의 한 소년이 염소 수를 헤아리다가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염소를 찾아 헤메었습니다. 우연이 맞은편에 동굴이 있어 동굴 속으로 돌을 집어던졌는데 향아

사해사본은 발견된 성경사본 중 가장 고문서(BC250년-AD68년)

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 동굴 속에서 고대의 향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길이 8.5m 넓이 3m 그리고 천장이 3m나 되는 꽤 큰 공간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높이 60cm가 되는 큰 향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안에 44cm의 폭에 8m나 되는 기다란 두루마리가 영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상한 글자들이 깨알같이 적힌 8개의 두루마리를 들고 동굴을 나왔는데 구약성경의 원본인 쿠파란 사해문서가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해문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씌어져 있었습니다. 연대는 BC 2세기에서 BC 40년에 걸쳐 있는데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성서 최고의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문서는 그 당시 유태교의 한 종파였던 금욕주의 예세네파의 고문서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기 68년이 되자 이들은 로마군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해동굴의 문서들은 이때 로마인들의 약탈을 피해 동굴 속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사해사본 중에 완전한 것을 정리하니 6권으로 추려졌습니다. 사해의 두루마리에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성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사해문서의 내용은 기원전 250년 전부터 기원후 68년까지 쓰여진 200여 편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포함 여러 장르와 문학, 기도문, 예언, 성경주해, 종교문서 등 총 900여 편에 이르는 다양한 문서들입니다.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주로 쓰여진 사해문서는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밀봉되어 있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면으로 싸인 카버를 열자마자 사라진 것이 많고 어떤 것은 우표조각 크기의 조각들로 떨어져 있어서 학자들은 수년간 이를 보존하고 해독하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LA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3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시하는 사해문서 전시회에 직접 가서 보는 것도 큰 감동일 것입니다.

두려움의 계절의 극복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현'을 조사해본 결과 2008년도의 발행한 그의 저서에서 순서를 비행공포, 고소공포, 광대, 친밀감, 죽음, 거부, 사람, 뱀, 실패, 운전 공포의 순서라고 밝혔다. 두려움의 강도는 다양하여서 두려움에 질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것까지 다양하다. 현대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이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다가오는 위협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공포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적인 불안정한 변화이다. 두려움은 본능적인 면이 있다. 두려움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있다. 두려움은 경보조작으로 압박한 위협을 알려주고 미리 대비하게도 한다. 두려움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도피하거나, 대항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숨어서 두려워 떨게 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이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도 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면 더욱 더 조심할 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두려움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

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파멸하게 한다. 나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잠3:25, 시46:3).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어야 할 진리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사탄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힌다. 먼저, 두려움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악인은 자기의 두려움으로 멸망을 당한다(잠28:1). 하지만 두려움이 의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다.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두려워하면 성도가 힘을

잃은 10년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했다. 다윗은 위기와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사41:10).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심에도 내가 왜 두려움을 경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허락하신다. 오직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에만 허락하신다(고전 10:13).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가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 줌으로 우리로 무기력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적인 무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효과적인 무기는 사랑이다(요일 4:18).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향해 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또 다른 무기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신 31:6).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두려움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해야 한다(시56:1-2).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시34:4).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시56:4,10, 11).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시56:11). 두려움의 계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의 삶을 영속하는 두려움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담대한 믿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달라스연합교회 공동체는 1966년(49년 전)에 창립되어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위치하며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 자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목사
 2. 정규신학교 신학대학원(M. Div. 이상)을 졸업하신 분으로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부목사포함)을 포함하여 총목회 경력 5년이상 퇴신분 (미국 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연령: 만40세 ~ 만55세
 4.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분
 5.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이 없으신 분
 6.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자필 이력서 (신력, 학력, 경력 포함)
 2. 목사안수증명서와 최종학위증명서
 3. 자기 소개서와 교회론및 목회관 (각각 1000 단어 이내)
 4. 최근 설교동영상 3회분 (DVD or Web link 등)
 5. 추천서는 2명이상 (일부날임과 추천인연락처 요)

- 제출 방법**
1. 우편주소: The Korean Church of Dallas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185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2. E-mail : chong.c@sbcglobal.net (위원장), davidkim.kcd@gmail.com (서기)
 3. 제출마감: 2015년 4월 30일

- 기 타**
1. 제출서류는 우편 혹은 이메일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 (chong.c@sbcglobal.net와 davidkimkcd@gmail.com)로 자신이 보낸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www.yonhap.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연합교회

청빙 위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5. 최소 2년 이상 사역이 가능하신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비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사무실(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메트(LAMET)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부지방의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안남산맥의 서쪽에 거주하는 라오 통(Lao Thung, "산허리의 라오스인")족과 관련돼있다. 라오통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라메트족은 약 15,000명에 이른다.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서지방의

외판 산악지대에 산재해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이들은 때때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일용직을 구하러 저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로 여기기도 한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에 속하는 라메티어를 사용하며, 이 언어는 팔라우(Palauang)어와 와(Wa)어과 관련을 갖는다. 대부분의

남자 성인들은 타이 유안(Tai Yuan)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습은 거의 없다. 각 가정들은 대략 6-7명으로 구성된다. 라메트족 가정에서 각 가족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돼 있다. 가정의 대표 남자 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가족은 나무나 대나무더미로 지어지며, 부엌이 집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중심에 남성들의 공공가옥(common house)이나 모임 장소가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며 신앙이

신부 집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끝마치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하거나 신앙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렘(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몰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만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마을의 렘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농업과 사냥에 종사한다. 농부들은 화전 농사법을 사용한다. 주된 농작물은 쌀이다. 라오족 및 타이족과 연장, 옷, 도자기 등과 같은 물건들을 서로 매매하기도 한다. 라메트족은 "정령승배"자들이다. 라메트족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피(phi)"라고 부른다. 이들은 피(phi)가 어디에나 살고 있으며 선과 악 모두를 일러 나게 한다고 믿는다. 또한 라메트족은 "조상승배"자이다. 조상의 영혼들이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메트족에게 조상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 라메트족은 다양한 종교적 축전과 마을 의식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일을 담당하는 사

람 혹은 "제미아(xemia)"가 이러한 의식과 축전 등을 지휘하며 마을 영혼들에게 제사하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의 거주 지역은 거칠고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라메트족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지역은 또한 여러 내전과 국제적인 전쟁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쟁들은 라메트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들은 진리와 내적 평화를 잠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라메트족은 문자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까닭에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메트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죽기 전 램브란트 전시회 방문한 여인

"죽기 전에 램브란트의 그림이 보고 싶어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던 78세의 여성이 지난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을 찾았다.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던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램브란트의 초상화를 감상하는 여성의 모습은 10일 미국 NBC뉴스 등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성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네덜란드의 '소원 앰블런스 재단'이다. 이 재단은 살남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특히 침상을 떠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물하고 있다. '소원 앰블런스 재단'을 만든 키스 벨드보어는 전직 구급차 운전사였다. 그는 2006년 11월 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던 중 환자가 과거에 선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때마침 구급차는 운하 근처를 지나고 있었고, 벨드보어는 환자를 위해 운하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 그곳에 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환자의 얼굴에선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벨드보어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벨드보어는 당시 환자에게 죽기 전 다시 배에 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회사 상사와 보트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다. 환자는 침대에 누운 채 배에 올랐고 생애 마지막 항해를 즐겼다. 이 일을 계기로 벨드보어는 2007년 4월 '소원 앰블런스 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받은 23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6대의 구급차가 마련돼 있다. '소원 앰블런스 재단'은 지금까지 6000여명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팔순' 미국 크리스천의 특별한 수상

"아내와 나는 한국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

니다. 남은 생애도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계속 동역하겠습니다." 올해 팔순을 맞은 글렌 F 머레이 미국국가조찬기도회 아시아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한국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그레이 위원장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의회선교연합 등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한평협)와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한·미 우호와 양국간 선교 협력에 힘써온 그의 헌신과 공로를 기려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과 감사패를 수여한 것이다. 머레이 위원장과 한국의 첫 만남은 그가 미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사역하던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던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 파송됐다. 신군부체제였던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한반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북악스카이라인의 팔각정에 올랐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다. "이 나라의 미래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35년 가까이 60차례 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그는 한·미 양국 의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국가조찬기도회 조직과 인적 자원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다지면서 의회선교 협력 활동에 힘을 쏟았다. 시상식에 함께한 머레이 위원장의 아내와 두 딸은 남편과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의 신앙 동지들도 진심 어린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날 행사는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교계의 공식 모임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머레이 위원장의 30년 지기인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오늘 이 모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신앙 유대와 동맹이 강화되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일기독교의원맹 지도목사인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



인 것처럼 한국과 미국 또한 혈맹관계"라며 "더욱 굳건한 관계로 설 수 있도록 머레이 위원장의 역할을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레이 위원장은 환한 웃음과 특유의 포용 제스처로 고마움을 나타냈다.

"미국 청년 뉴스 읽지만, 신문보단 SNS 선호"

요즘 세대는 세상일에 무관심하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의 젊은 층은 여전히 뉴스를 접하길 원하지만, 신문을 찾아 읽기보단 페이스북 등에서 우연히 뉴스를 얻길 바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언론연구소와 AP통신-시카고대 전구역론조사센터(NORC) 공공정책연구소는 현재 18-34세인 '밀레니얼 세대'(21세기 들어 성인이 된 첫세대) 1천46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약 85%는 뉴스를 계속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69%는 매일 뉴스를 접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젊은 성인들이 주변 세상일에 무관심하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나 정보를 얻으려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말한 조사대상의 비율은 39%에 그쳤고, 약 60%는 주로 다른 온라인 활동을 하다가 뉴스와 우연히 마주친다고 답했다. 종이신문을 직접 돈 내고 구독한 경험자는 12%에 그쳤고 디지털 신문을 유료 구독했다는 비율도 7%에 그쳤다. 13%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신문을 읽는다고 밝혔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페이스북을 뉴스를 접하는 주된 통로로 꼽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약 88%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와 정부 관련 뉴스를 주로 페이스북에서 읽는다고 말한 조사대상의 비율은 47%였다. 사회문제 관련 뉴스나 국제 뉴스에 대해 같은 답을 한 조사대상은 각각 62%와 41%였다. 페이스북은 24개의 뉴스 주제 가운데 13개에서 '최고의 뉴스 출처'로 꼽혔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약 70%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자신의 의견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섞인 다양한

관점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SNS 뉴스 소비자'는 남의 추천과 댓글 때문에 평소같으면 지나쳤을 주제에 종종 빠져들게 된다"며 "밀레니얼 세대는 (뉴스를 위한) 별개의 공간이나 뉴스 공급자에게 직접 찾아가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70대 수녀 집단 성폭행 충격...

인도에서 70대 수녀 무장 괴한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인도에서는 가톨릭이나 기독교 단체를 겨냥한 공격이 잇달아 치고 있어 이번 집단 성폭행 사건도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인도 동부 웨스트벵갈주의 가톨릭 학교에 근무하던 한 70대 수녀가 무장 강도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7-8명의 남성이 예수 마리아 수녀회가 운영하는 웨스트벵갈 주 나디아 지역의 수도원 학교에 침입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친 수녀는 주도 홉카타의 한 병원에 이송해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수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71, 72세 수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학교에 침입한 강도들은 경비원을 묶어놓고 수녀들이 잠자던 방에 침입했다. 이어 자신들을 저지하려는 수녀를 다른 방에 끌고 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수녀와 함께 있는 다른 70대 수녀도 강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현금과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빼앗고 도주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속히 범인을 잡아달라고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마타 바네르지 웨스트벵갈 주 총리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경찰에 수조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기독교 단체는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성범죄가 성행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성폭행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영화 상영 금지 등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

총신교회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40년 목회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목회자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조언을 담았다.



완주자의 노래

박종순 지음

목회는 세상 논리를 따라 일정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 감정과 상황을 따라 변하는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목회는 마라톤이다'라고 정의내린다. 중도 포기나 탈락 없이 완주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판승부보다는 완주 목회가 중요함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한다.



■ 저자/박종순

동부이촌동의 총신교회 원로목사로 서, 사단법인 한지터 이사장 겸 대표, 한중기독교교류협회 대표회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숭실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C채널 TV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박종순 목사의 또다른 저서

하나님의 사람들

344면 / 12,000원 / 신국판 양장
총신교회의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29번째 설교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은 본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하자는 저자의 바람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며, 부활절, 사순절을 비롯한 여러 특수 설교도 함께 모았다.



축복 언어

272면 / 10,000원 / 사륙판 양장
사람은 한마디 말과 한 줄 글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삶을 정돈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틈틈이 쓰고 모았던 글들을 책으로 묶어 펴내기로 하고 책명은 "축복 언어"로 정했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독자는 복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 (2)

우리는 '오늘'이란 시제를 살면 서도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미지의 시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제한된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본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다.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후 70년에 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질문: 그렇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한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동의하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예루살렘 성전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대단히 화려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헤롯의 성전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자리에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587년에 파괴되고 말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다. 잠시 중단되었다가

요세푸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 주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씀은 그대로 이뤄져

공사가 516년에 마쳐졌다. 불행하게도 이 성전은 169년에 시리아에 의해 파손되었다. 기원전 20년경,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여 다시 지었다. 심지어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계속 건축이 진행되어 서기 64년에 완성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주후 70년 최후의 순간을 맞았다.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일부가 보존된 '통곡의 벽'도 성전의 일부

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에게 큰 파장을 안겨주었다. 영적 중심지인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그들의 중심 자치 조직인 '산헤드린'이 소멸하게 되었다. 즉 유대 최고 재판소이며 행정기관의 자격으로 민법적이며 제의법적인 사항들을 다루었

고, 종교적 실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다루었던 자치 정치 조직이 붕괴된 것이다.

■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지난 호에 소개한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어떤 로마의 역사가도 이 전쟁에 대한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요세푸스는 자신이 친히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역사가의 안목으로 서술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여 발발한 독립전쟁(주후

66-74)의 과정에 생긴 일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 점령한 정치적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주후 66년, 로마 총독이었던 플로루스(Florus)가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

황제로 추대되자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 당시 요세푸스는 티투스와 매우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티투스는 요세푸스를 적진에 보내어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다.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는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자국민들을 살리고 성전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총실이 명령을 수행하였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목

멸망한 도시로부터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요세푸스는 그의 부모, 형제, 지인 200명,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경전을 취할 것을 요구하여 허락받았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수많은 주검을 보았는데, 그중에 자신이 아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요세푸스는 자국민이 100만 명이 생명을 잃은 전쟁을 무서울 정도로 냉담하게 기록하였다. 왜 그랬을까?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게 수난을 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확신하였다.

■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24, 마가복음 13, 눅 17:20-37, 19:41-44, 21:6-3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동시대의 세속 역사가의 글이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내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일'에 관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가정사역 칼럼

치매 예방과 노인 건강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아가 위로의 말을 나누거나 그분의 필요-식사를 챙겨 드리거나 청소나 정리 정돈-를 도와드리며 카드나 편지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이나 그 외의 공식적인 일정을 누군가 책임져주고 일을 처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 대가족 중심의 생활 속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집안 중심으로나 마을 어른들 중심으로 처리를 도와주었으나 이제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생각해볼 것도 필요하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비타민 C, E는 언어적인 기억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며 특히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로 인해 뇌세포의 노화

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 음식으로는 양배추나 고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키위, 망고, 오렌지, 파파야, 파인애플, 딸기, 토마토 주스 등이 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나 근대, 케일, 무우청이나 갓 김치 등이 있다. 근대의 연구에 의하면 엽산(folic acid)나 비타민B-12가 기억력 감퇴를 막아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부부도 50대가 넘어서면서 기억력 감퇴를 느끼면서 고민하던 중,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많은 도움을 보고 있다. 그런 음식으로는 쇠고기 간이나 대합조개, 생선이나 닭고기 등이 해당된다 한다.

포화 지방이나 설탕 류의 음식은 알츠하이머(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포화지방이나 글리세린의 비율

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기나 닭고기류 음식을 먹을 때도 저지방 음식이 좋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음식으로는 포도씨 기름을 비롯하여 올리브 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이 있다. 낮은 글리세린의 음식으로는 사과나 배, 포도, 현미, 너트나 밀과 각종 씨앗이 들어간 빵이나 시리얼, 고구마나 우유, 요구르트 등이 있다.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나 청어, 고등어, 정어리 등이 있는데 기억력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한다. 물론, 요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선 물질 누수로 인해 일본 바다의 오염이 심하게 원산지를 잘 살피고 조심해서 먹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행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학생부: 오전 10시, (한국어) 오전 11시 유자, 유녀: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704)529-0900 / 0988(백스쿨) 701 Scaleybark Road, Cary, NC 28209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앵커리지영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행: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새벽기도회(토, 주일) Tel: (410)292-0949, 사행: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d.org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대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한/영) 주일 5부예배: 오후 7:00(한/영)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성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아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tkcpc.org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227)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36) 날카로운 이빨

흔히 날카로운 이빨은 육식 동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송곳니는 다른 동물들을 죽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동물들의 날카로운 이빨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이빨들을 아담의 타락과 저주의 산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현재 증거들을 살펴본다 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판다는 일상적인 경우 거의 대나무 잎만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다. 판다는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 이빨은 특별한 발과 함께 대나무를 먹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육식을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싫어했던 사자(Little Tyke 로 알려졌음)에 대한 기록도 있다. 킨카주(kinkajou)라고 불리는 동물은 중남미에 사는 너구리 비슷한 동물이다. 이 동물의 두개골이 처음

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순간에 혹은 삼키고 난 직후 아직 소화되어 없어지기 전의 모습이 보인다. 노아홍수 직전에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은 노아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

의 유전정보를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인류를 위협하던 것들이 인류에게 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생겨나고,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생겨나고, 동물들 중에서는 송곳니가 날카롭게 자라나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변화와 학습이다. 타락의 결과 육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손들은 그 육식이 습관으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열매를 까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하도록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타락 후에 그것을 다른 동물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데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예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니라 아마도 3가지 영향이 모두 종합 된 결과가 현재의 먹이사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먹이 사슬이 자연스러운 법이다. 강한 동물을 약한

날카로운 이빨 가진 초식동물 존재 타락후 창조세계 시스템에 큰 변화

현재의 먹이사슬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육식을 하는 동물로 결론지었다. 이 동물을 잡으려고 낚고기 미끼를 사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은 바나나 미끼를 가지고 이 동물을 생포할 수 있었다. 이 동물은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초식동물이다. 과일 박쥐들도 역시 이빨이 날카롭지만 채식만 하고 있다.



것이다. 육지 동물들 중에서도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 중에서도 벌써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창세기 4장의 가축치는 자의 조상인 아발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고통과 죽음이 없었다.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했기 때문이다. 식물은 하나님의 기증에서 생명체가 아니므로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고통과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11장과 65장에서는 장차 이리, 양, 표범, 염소, 사자, 소, 곰 등이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서로 해함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노아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

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어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 9:2-3).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타락과 더불어 창조 세계의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경을 사실로 믿는 학자들이 추정하는 육식으로의 변화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에덴에서의 인류 타락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

동물을 잡아먹고 더욱 진화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약한 동물이 멸종 된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약한 동물이 멸종하는 예는 별로 없다. 오히려 진화론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포식자들이 먼저 멸종한다. 토끼 멸종을 염려하는 동물 애호가는 없지만 토끼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해 주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먹이사슬이 생겼을 것이란 추측은 눈앞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보는 것으로 시야가 좁은 것이다. 현재의 먹이사슬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인 것이다.

타락은 기존에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돌연변이보다 더 큰 갑작스러운 변화가 동반된 인류 최악의 대변화였던 것이다. 그 영향력은 죽음과 고통, 아픔과 슬픔, 탐과 눈물과 노동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메일: mailforwsc@hotmail.com
[편집자주: "창조칼럼"은 이번 호로 마칩니다. 지난 4년반동안 집필 해주신 최우성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세월과 은혜

요즈음은 카톡이 연결되어서 전화대신 카톡 메시지로 많은 대화를 한다. 세계 어디에서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그룹 카톡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계속 카톡, 카톡 마지 팔뚝질하듯이 소리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룹 카톡의 공해적인 면도 있다.

지난 주 LA에 사는 중학교 동창이 오랜 만에 전화를 해서 중학교 동창들이 카톡 그룹을 만들었는데 나도 그룹에 초대하겠다는 말을 했다.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동창들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었지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었기에 잘 아는 친구들하고만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부터 카톡 카톡 난리가 나서니 하루밤 자고 나니까 배개가 넘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이름만 기억나는 정도의 동창도 있고 얼굴도 생각나는 반가운 동창도 있었다. 대부분 오고 가는 메시지는 "나 누구데 너희들 나 기억나니?" "그래, 너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런 말들로 사십여년 지나 다시 연결된 어린 시절 친구들에 대한 반가움,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선생님들도 두 분이 들어 오셔서 동창들이 서로 "선생님, 저 누구예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선생님은 놀랍게도 아이들 별명까지 기억을 하고 계셨다.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집안에 6.25 때 부역을 한 친척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격이 되어 늘 탄탄을 하시던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소설가가 되어 있으셨다. 삼부작 역사소설을 쓰신 것이 반응이 좋아서 지난 달부터 TV에 사극으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선생님도, 옛 친구도, 얼굴에 옛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안부가 궁금했던 선생님과 몇 명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사십여년의 세월을 서너 문장으로 표현해서 안부를 보내면서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카톡으로 소식을 전하기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씩하고는 어떤 사이인지도 많이 궁금했다. 목사 사모가 된 친구, 카톡 배경에 교회 사진과 시편 말씀을 적어 놓은 친구를 보며 마음이 기뻐했다. 소설가가 되신 선생님은 여승을 인턴부하러 몇 년 전 미국에 다녀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림 불교 신자이신건지, 그래서 카톡 프로필 그림을 연꽃으로 하신건지 궁금했다.

새벽부터 너무 많은 소중한 얘기들이 오가서 친했던 친구들만 따로 저장해 놓고 슬그머니 카톡방을 나오면서 중학교 시절을 다시 돌아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이 기억하듯이 팽팽 도는 안경을 낀 어린 여학생이 아닌 눈가에 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게 나이이지만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아까지 인도해오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메일: lpyun@apu.edu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실고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가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2015년 1월**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월 ~ 10일 가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2일 가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3일 인천강교회(이철홍목사)
 -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 11일 ~ 13일 (함동)동인전교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 22일 ~ 31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월**
-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 2일 ~ 7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 16일 ~ 19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 23일 ~ 25일 동중교회(윤석호목사)
 -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 3월**
- 2일 ~ 4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 9일 ~ 11일 (함동)태백시찰 연합성회
 - 16일 ~ 19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3일 ~ 31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7일 ~ 29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 4월**
- 1일 ~ 4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 13일 ~ 16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 5월**
- 4일 ~ 7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1일 ~ 21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31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 2014년 1월**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월 ~ 9일 가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 16일 ~ 25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19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지동근목사)
 -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월**
-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 10일 ~ 13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 20일 ~ 28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3월**
- 1일 ~ 8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10일 ~ 13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상일교회(원용식목사)
 -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4월**
-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 7일 ~ 9일 목동김리교회(최한규목사)
 - 14일 ~ 17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 24일 ~ 30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5월**
- 1일 ~ 10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일 ~ 4일 시애를 성회(최민하목사)
 - 12일 ~ 15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9일 ~ 22일 가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6월**
-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 15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 16일 ~ 19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4일 ~ 30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 7월**
- 1일 ~ 10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14일 ~ 17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8일 ~ 31일 가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8월**
- 4일 ~ 7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 21일 ~ 30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 9월**
- 1일 ~ 6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8일 ~ 11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차유회)
 -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 24일 블레스 샬교회(고영수목사)
 -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 28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 10월**
-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 13일 ~ 16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 23일 ~ 31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11월**
- 1일 ~ 8일 LA 미주 가멜산기도원(미국)
 -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마라톤 블레스 집회)
 - 10일 ~ 13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원 강의
 - 30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 12월**
-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 8일 ~ 11일 가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 31일 가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목회서신

거품 없는 신앙교육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교회)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머택스(Metaxas)는 지난 7월 2일에 '왜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머택스의 분석

에서 주목할 사실은 기독교를 떠난 대부분의 청년들의 답은 많은 교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부분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한 젊은이들 중 많은 수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룹의 리더로 섬기는 등 활발

한 활동을 하였다 한다. 그런 그들이 무신론자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머택스는 신앙적 도전을 주기보다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교회의 시도가 오히려 회

중들을 신앙에서 떨어뜨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청소년 사역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결과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고 하였다.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아주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미있게 해주겠다는 집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진지하게 전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로 당사 눈앞에서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는 기독교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게 된다.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층들이 교회를 찾을 때 마음속 깊이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아이의 영혼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지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어떤 목표로 신앙 지도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 아이 잘 키우겠다는 꿈은 있는데 정말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더욱 선명히 그리고 더욱 뿌리 깊이 아이의 영혼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복

음만이 참되고 겸손하고 유순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단지 몸집이 커진다고 기뻐하겠는가? 건강하지 않고 불어난 몸집은 결코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몸집 불어나듯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온통 사로 잡혀 사는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을 소위 '거품'이라고 하지 않는가? 당시 아이의 신앙 교육까지도 '거품'을 추구해 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 하나 하나에 대해 믿음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자란 아이는 마치 반석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고 강건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총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KAPC 총회정상화 감사예배...KAPC 명칭 단독사용 판정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는 총회 정상화 감사예배를 지난 10일 오후 5시 세계소방교회(담임 오세훈 목사)에서 열렸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2013년 5월 제37회 총회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총회이탈자와의 법적인 공방을 가져왔던 총회는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더 이상 이탈자들이 KAPC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며 KAPC 명칭은 정관일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KAPC 총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총회정상화위원회 회장 염영민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총회정상화위원회 회계인 오세훈 목사



KAPC총회 정상화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 기도했으며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여기까지 우리 총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시 136:12-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총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재판종결로 사실상 정상화 감사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일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총회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 총회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표시는 예배밖에 없다. 이번 일로 총회가 힘들게 이어온 재판이 아름답게 종결된 것은 (총회원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종결 시키신 것으로 감사한 일이다. 총회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총회정상화위원회 총무 김오섭 목사가 재판결과보고를 했으며 황은영 전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길교회에서 열린 PCA 한인 서남노회 제 6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 조남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노회분립 후 첫 노회 순항

PCA 한인서남노회 제64회 정기노회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조남 목사) 제64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노회는 작년 가을노회에서 서남노회와 서남오렌지카운티노회로 분립한 후 첫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노회는 특별한 이슈 없이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노회장 조남 목사(밸리 벨엘장로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 및 성찬식은 신정훈 장로(밸리 벨엘장로교회)가 기

도했으며 최봉호 목사(버뱅크한인장로교회)가 설교했다. 성찬식은 박선민 목사가 집례했으며 정희주 목사(밸리 벨엘장로교회)가 축도했다.

모든 회무처리를 마친 후에 열린 폐회예배는 노회장의 인도로 이상현 장로(한길교회) 기도와 노회장 조남 목사가 설교한 후 중국선교사인 김성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왼쪽 첫 번째가 신임 노회장 김현인 목사. 왼쪽에는 노회에 가입한 이병희 목사

노회장 김현인 목사·이병희 목사 가입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24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24회 정기노회가 나성안대교회(담임 차병학

목사)에서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1부 예배는 노회장 차병학 목사

의 사회로 서기 김현인 목사 기도, 부노회장 김만수 목사가 디모데전서 4:12-16 본문으로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전 노회장 김성일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한 후 부서기 조정기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개최된 정기노회 회무처리에서 무기명투표로 △노회장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드한교회) △부노회장 조정기 목사(아리조나 갈보리 섬기는교회) △서기(회록서기 겸 직) 김성일 목사(빅도빌예수마음교회) △회계 박영수 장로(동문교회)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편 목사후보생고시에 응시한 김홍철 전도사(남가주든드한교회)의 합격발표가 있는 후 김양현 목사의 남가주노회로의 이명을 허락했으며 LA 카운티 셰리프 디파트먼트에서 시니어 체플린으로 교도소 전문 사역을 하는 이병희 목사(남가주든드한교회)의 노회 가입을 수락했다.

또한 동문교회 장로증원 정원

에 대한 지도와 관련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함을 결정한 후 폐회했다.

(이성자 기자)



은혜한인교회 체육관에서 개최된 노숙자들을 위한 음악회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악회, 일일숙박 제공...2008년부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3월 7일 오후 6시30분 교회 체육관에서 노숙자를 위한 음악회와 저녁식사와 더불어 일일숙박을 제공하는 섬김의 시간을 본 교

회 부설인 은혜봉사센터 주관으로 은혜한인교회 오케스트라팀과 함께 가졌다.

약 150명 정도의 노숙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한 행사는 약 2시간 정

도 진행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은혜봉사센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5개월간 여러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헌신으로 약 25,0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매일 새벽 풀러튼 지역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팀(약장 정승재 집사)은 매 주일 예배와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유스 오케스트라 팀도 운영하고 있다. 봉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은혜봉사센터(714-944-0834)나 오케스트라(714-318-2085)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워터투게더 콘서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콘서트를 주최하는 원하트 미니스트리 대표인 피터박 목사(사진 오른쪽)가 파라과이 차코지역에 보내질 정수기와 워터백을 들고있다.

“파라과이 차코지역에 정수기 한 대를” 원하트미니스트리, 28일 워터투게더 콘서트 개최

문화사역 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워터투게더 콘서트(Water Together Concert)가 오는 28일(토) 오후 6시30분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본 콘서트를 준비하는 스템진들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기자회견을 갖고 콘서트에 관해 소개했다. 이번엔 정수기를 설치할 지역은 파라과이 차코지역이다. 피터박 목사는 “지난해 10월, 지

구촌 곳곳의 어려운 민족들과 선교지들을 돌보는 한국 오픈핸즈(Open Hands) 대표 조명희 집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워터백(정수기) 설치를 통한 선교 사례들을 듣게 됐다. 물이 없는 지역은 대형교회나 단체들의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빈민국의 소외계층,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언급

하며, “인도네시아 개발도시 근처의 사창가, 도시개발로 고가 밑에서조차도 밀려난 극빈층 아이들, 필리핀 공동묘지 지역의 아이들 등 다양한 지구촌 가족들에게 이 정수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러한 정수기 사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동기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공연에는 ‘섬김’, ‘심자가’, ‘사명자’ 등의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진 강찬 전도사,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2세 합참팀 Amp Movement 등이며, 존 최 목사(달라스 글로벌헤비스트교회 담임·JAMA 음악디렉터)는 말씀으로 각각 섬겨줄 예정이다.

한편 피터박 목사에 따르면, 이 콘서트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봄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 명칭도 내년부터는 ‘World Together’로 바꾸고 더 많은 아이들과 방법으로 지구촌 가족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지역사회와 교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지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세한 문의 및 티켓구입은 (213)347-5080, www.wtconcert.com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Advertisement for '하나님의 구원계획' (God's Plan of Salvation) featuring a GPS Center. It includes a photo of a man, a list of book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전도협의회 전도세미나

뉴욕전도협의회(회장 오태환 목사)가 주최하는 지역교회 살리기 전도세미나가 "교회부흥 반드시 된다" 주제로 4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재열 목사(한국 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문의: (646)354-8989

글로벌선진학교 교육컨퍼런스

한국 글로벌선진학교가 펜실베이니아에 미주 기독교대학과 9월 개교를 앞두고 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미주성서화 운동본부(대표 박희민 목사, 상임회장 한기형 목사)와 MOU를 맺고 동역한다. 일시는 4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이며 참가비는 없다. 목회자, 선교지도자, 교육지도자, 학생 학부모 200명을 초청하며 사전연락이 필요하다. 이메일: sungwoolas@naver.com

▲문의: (213)675-6493

제35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생활컴퓨터 무료강좌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35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4월 2일(목)부터 23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5분부터 12시15분까지 총 4회에 걸쳐 뉴욕기독교 방송국 사무실(163-07 Depot Rd. #B-2 Flushing, NY)에서 열린다. 제 35기 컴퓨터 강좌는 '컴퓨터 활용법'으로 강의내용은 △실용 기초 조정기 △구글과 G메일 정복 △유튜브의 모든 것! △컴퓨터로 카톡하기 등 실용적인 기초와 중급 수준의 컴퓨터 활용법 위주로 마련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40달러(개근자는 환불) 선착순 6명 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이메일 newyorktop@gmail.com

▲문의: (347)538-1587

송정미 사모 콘서트

찬양 가수 송정미 사모 콘서트가 3월 21일(토) 저녁 7시30분 뉴욕 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문덕연 목사, 60-02 138st Flushing)에서 열린다.

▲문의: 718-757-1142



임현수 목사 조기석방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조기석방 기도회

뉴저지교협·뉴욕교협...큰빛교회 일행 참석 호소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한 기도회가 뉴저지교협과 뉴욕교 목사의 북한 억류 조기 석방을 위 협에서 열렸다. 지난 11일 저녁과

12일 열린 조기석방 기도회에는 큰 빛교회 후임 제임스 노 목사 일행 이 참석했다.

11일 저녁 뉴저지 사랑의글로벌 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임현수 목사가 대표 로 있는 선교단체 GAP(Global Assistance Partner)의 요청으로 뉴저지교회협의회가 주관해 열려 된 것으로 이날 기도회 이후에는 GAP의 관계자가 경과보고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12일 뉴욕교협 임실행위와 함께 열린 기도회는 제임스 노 목사와 안강희 GAP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제임스 노 목사는 임현수 목사의 나진 방문경과를 설명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고위관리로부터 평양 방문 요청을 받고 1월 31일 단독으 로 북한에 들어갔으며 2월 4일 북 경에서 일행들과 만나기로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임현수 목사가 평양방 문을 요청받았을 때 자신은 북한비 자가 없고 예블라 격리(21일 억류) 에 대해 질문했으나 북한관리는 모 든 것은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말했 다고 밝혔다.

노 목사는 이후 상황은 이미 언론 에 알려진 바와 같으며, 교회는 현 재 새벽기도회와 금식 릴레이 기도 등 은 교인이 합심기도를 하고 있 다고 말했다. 또 임현수 목사는 북 한선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언론의 선부 른 보도가 임 목사의 안전을 더 위 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교협은 이날 온타리오인 교협이 작성한 '임현수 목사 석방 및 송환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신임 뉴욕노회장에 이영상 목사

제76회 정기노회 개최, 부노회장 황경일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손환권 목사)가 10일 뉴욕중앙산정현교회(담임 이영상 목사)에서 제76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신임노회장에 이영상 목사, 부노회장에 황경일 목사를 선 출했다.

이 밖에 임원진은 △서기 김해 근 목사 △부서기 홍준식 목사 △ 회록서기 임영건 목사 △부회록서 기 임병순 목사 △회계 전성호 목 사 △부회계 유경준 장로 등으로 구성됐다.

신임 노회장 이영상 목사는 "믿 고 노회장을 맡게 주신 회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지금까 지 선배들이 보여왔던 섬김을 본받 아 회원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노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노회 현의안은 부르크 린제일교회 이윤석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택 허락의 건, 주비전교회 이규본 목사가 청원한 장로 1인 증택 허락의 건, 새생명장로교회 허 준운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택 허락의 건이 올라왔다.

목사안수 허락청원은 뉴욕새벽 별장로교회 정인수 전도사와 주비 전교회 서욱석 전도사로부터 있었 으며, 예사랑교회와 퀸즈장로교회 는 부목사 계속 청빙을, 뉴욕새벽 별 장로교회와 주비전교회는 교육목 사 청빙의 건을 청원했다.

노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직전노 회장 손환권 목사의 인도로 김성국 목사 기도, 정기대 목사 성경봉독, 이영상 목사 설교, 성찬예식, 김해 천 목사 축도, 문중은 목사 광고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상 목사는 "느헤미야의 관 심"(느1:1-11)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예루살렘성이 훼파되고 성문 이 소화된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깊이 회개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 님의 사역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충 성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 자"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욕노회)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 걸고 교회 섬기자"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 발표

뉴욕교협이 12일 2차 임실행위 원회를 열고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정을 발표했다. 또 북한에 억류중 인 임현수 목사(캐나다 큰빛교회) 의 조기석방 기도회도 가졌다.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 임 김성국 목사)에서 가진 임실행 위 1부 예배는 장제용 목사 인도로 기도 조병광 목사, 말씀 이홍삼 목 사, 통성기도, 광고 이철희 목사, 축 도 황경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홍삼 목사는 "내게 있는 것으 로 내게 주노라"(행3:6-10)는 제 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두 제자 는 예수님이 하셨던 지주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역을 해 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그 이름에 미친 자로, 우리의 전공은 예수이며 생명 걸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 신다"고 전했다.

2부 회무는 이재택 회장 사회로 김전 원로성직자회 회장이 격려사 및 개회기도를 한 후 회원점명 한 기술 서기, 업무보고 김희복 총무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 사의 조기석방을 위한 기도회(별

도가사 참조)가 있었으며, 퀸즈장 로교회 김성국 목사의 인사말이 있 었다.

안건으로는 △각 지역 부활절 새 벽연합예배(준비위원장 박마이크 목사): 4월 5일(주) 새벽 6시 △이 영훈 목사 초청 기도회 및 환영만 식당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대뉴욕지구 연합기도대회: 18일(수)-20일(금) 오후 8시, 프라미스 교회 △청소년센터 농구대회: 4월 18일(토) 오전 9시, 흘러 카우 플레 이 그라운드 등이 발표됐다.

보고로는 신년감사말 및 하 레만찬(총수입 29,350달러 지출 26,319달러), 교협이전 봉헌 감사 예배(총수입 22,217달러, 총지출 15,205달러)에 이어 김영철 감사의 감사보고(2014년 10월-2015년 2 월)가 있었다. 김영철 목사는 임원 활동비는 세부적 분류를 하고 영수 증을 첨부할 것을 권면했다.

마감기도 및 식사기도는 이문구 목사가 했다. 장소와 식사를 제공한 퀸즈장로교회는 참석자들 모두에 게 선물도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부활절예배 5곳 · 복음화대회 10월 1-4일

필라교협 실행위, 복음화대회 강사는 손현보 목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해근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초대교회(담임 이웅도 목사)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2015 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1부 경건 예배는 최해근 목사의 사회로 정희권 목사(서기) 기도에 이어 박등배 목사(증경회장)가 출 애곡기 38장 8절을 인용, "내 거울 을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등배 목사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물두명은 회막에서 여인 의 거울로 만들어졌는데 여인들이 자신의 육신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있었 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거울에 비친 세상과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과 손잡고 걸어가지"고 말했다. 예배는 김치수 목사(증경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 처리에서 4월 5일 부활

절 새벽연합예배의 지역별 장소를 결정했다. 시간은 오전 6시이며 펜 스테일 지역은 △블루벨 △호샤. 콘 스아캔지역은 △셀트렘 △빅스카 언티 △어퍼다비로 결정하고 장소 와 진행자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 다.

이어 2015년 필라 복음화 대회는 10월 1일(목)부터 4일(주)까지 열 리며 강사는 손현보 목사(세계로교 회) 로 확정하고 추후 순서와 장소 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빛과사랑' 제 12회 성경암송대회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12회 성경암송대회가 4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개인부 (1등 2000달러, 2등 1500달러, 3등

1000달러)과 단체부(1등 1500달러, 2등 1000달러, 3등 600달러)로 나눠 한국어 영어로 진행된다. 신청마감 은 4월 15일까지.

▲이메일: lightnloveny@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yahook</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영예예배: 오전 10:30 영예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gtch.com</p>	<h4>뉴욕순복음안나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영예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예)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moakyang.org</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4us.org Tel: (516)333-7757, 목사: (516)47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선한목자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영예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p>	<h4>에벤에셀선교회</h4> <p>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8:30</p> <p>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p>	<h4>예사랑교회</h4> <p>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mak@gmail.com</p>	<h4>하와이 및 북미 지역</h4>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0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R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별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8A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로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월-토)</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예)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9:00 (1, 2, 3, 부 사순절 제외)</p> <p>Tel: (595)221-574-985 E-mail: hanjnk@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예)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비자장사 한국계 직업학교 4곳 기습단속

한인대표 등 3명 기소...공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학생 확산우려

유학생들의 신분문제를 이용해 학교운영을 해왔던 자들이 연방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LA 한인타운과 알함브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지난 10여년간 어학원 등을 운영하며 이른바 학생비자 장사를 해온 심희선(레너드스) 씨와 학교 관계자 문찬형(스티브 문), 최은영(제이미최) 씨 등 한인 3명을 비자 사기, 돈세탁 등 20여건의 혐의로 체포,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9년에 폐교된 유니온신학교처럼 불법으로 운영 중인 학교들이 감지돼온 만큼(본지 2월14일자 9면 참조)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프로디 유니버시티(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과 월터 제이 엠디 교육센터(Walter Jay M.D. Educational Center), 아메리칸 포렌식 스테디 칼리지(American College of Forensic



유학생들의 신분문제를 이용해 비자장사를 하다 적발된 프로디 유니버시티, 네오엠 어학원 출입문에 전학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어있다

studies) 등 한인타운 소재 학교 3곳과 알함브라 지역의 리키 패션학교(Lik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 모두 4곳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최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심 씨 등이 비자장사를 통해 취한 이익이 한 해 60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이들 학교는

I-20 발급 자격이 즉각 박탈됐으며, 이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 소속 요원들이 급습해 수색영장을 집행한 뒤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심 씨는 이날 오전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4개 학교에 등록해 돈을 내고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체류신분을 연장해온 학생들은 1500명에 달한다.

한편 심씨가 검거된 이후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타 학교로 전학을 모색하고 있으며 타운내 월드미션 대학교, 미성대학교, 미주중성대학교 등 한인신학교들과 가주영어학교 등 타운내 어학원들에 편입문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으며 학교로 찾아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쇄도해 기존고객들과의 상담업무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프로디 관련 문의전화 300여통이 넘게 오는 바람에 기존고객과의 상담전화

를 할 수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라고 밝히 이번 사태의 여파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사태에 연루된 2,0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타 학교 전학 등으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처럼 학교문제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추방을 당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해당학생들 중 비슷한 케이스의 전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방법은 프로디 유니버시티 등 4개 학교의 I-20 자격 종결 및 타 학교 전학안내에 대한 공문이 발송된 후 30일안에 타 학교로 편입이 가능하다. 이미 프로디유니버시티 출입문에는 60일안에 타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는 공지문이 붙어있는 상태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학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폐교된 유니온신학교의 사례에서는 해당학생의 전학이 이루어졌지만, 해당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당국의 조사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학을 허가한 학교에 감사사 시행돼 학교업무에 지장이 있어온 바, 이번사태 역시 해당학생의 전학을 허가했을 때 예상되는 감사 등으로 학교들이 이들 학생의 전학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 씨 등이 체포된 이후 중대한 공문서 위조부인이 학생들의 I-20 위조일 것으로 보여 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구속된 심씨가 관계하고 있는 신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범위가 타운내 한인신학교로 확대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프로디 유니버시티와 유사하게 운영을 해온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55기 C.W.M 전도훈련

C.W.M(Christ Witness Mission) 제 55기 전도훈련이 3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조복섭 사모와 이은희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다. 교역자, 사모, 신학생 핑신도 등 참석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40달러. 4명이상 단체 등록시 50% 할인이 있다.

▲문의: (562)480-6975, (714)371-6406

십자가 사역 실시

십자가사역원(원장 이명수 목사)에서는 2015년 첫 십자가 사역을 5월 5일과 6일 청운기도원에 실시한다.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는 것으로 목회자에 한해 20명 선착순 마감.

▲문의: (213)675-8291

드림교회 선교간증집회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선교간증집회를 3월 22일(주) 오후 1시30분에 분당에서 갖는다. 강사는 김해영 선교사, 김수지 박사.

▲문의: (626)793-0880

오렌지한인교회 창조과학 세미나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는 본 교회 청년부 주최로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이며 일정은 25일(수) 오후 7시30분, 29일(주) 오후 1시30분.

▲문의: (714)871-8320

시드선교회, 최종상 선교사 간증집회

'유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주제에 최종상 선교사 간증집회가 23일(월) 오전 10시-12시까지 시드(Seed)선교회에서 열린다. 최종상 선교사는 런던에서 교회(영국인)를 개척해 사역했으며 런던 신학대학 객원교수 역임, 현 동 대학 연구교수로 활동하는 등 오랜 시간 영국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체험한 간증을 나누며 영국교회 재부흥에 미국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가 실천해야 할 성경의 원리가 있음을 제시한다.

▲문의: (562)926-4700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주최하는 '자녀 인터넷 중독예방과 대처'세미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전정 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한국낙도 교회들에 반주기보내기 후원

제4회 LANAM성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ANAM성신교합창단(단장 유창호, 지휘 원영진)이 주최한 제4회 정기 연주회가 '웰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주제로 15일 저녁 7시 월서연합 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는 한국 낙도의 작은 교회들에게 찬송가 반주기 보내기를 위해 후원하는 연주회로 열려 그 의미를 깊게 했다.

유창호 단장은 인사말에서 "7년 전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LANAM성신교합창단이 창단됐다. 특별히 연주할 사람이 없어도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낙도의 작은 여러 교회들에 찬송가 반주기를 보내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회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

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노래하는 복된 밤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권혁빈 목사(앨바인온누리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찬양(십자가, 부활) △합창 △찬양(주님의 은혜)라는 색선으로 나눠 공연이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최정원, 박트리오(박윤재, 박수정, 박앤드류)의 피아노 3중주가 아름답게 울려 퍼져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공연을 마친 후에 청중들의 열렬한 애향 요청으로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불렀다.

연주회는 정영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자녀 인터넷 중독예방과 대처' 주제

한인가정상담소 부모세미나, 4월 11일, 18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소)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로 부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일시는 오는 4월 11일과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카이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전정 박사, 로렌 권 한인가정상담소 부모교육 전문상담가, 풀윤 한인가정상담소 청소년 전문 상담가, 박해영 한인가정상담소 임상심리상담가가 강사로 나서 강의하게 된다. 강의 장소는 한인타운내 6가와 하버드코너에 위치한 한인가

정상담소(3727 W. 6th St, Suit 320, LA).

수전정 박사는 "인터넷 중독 역시 정신장애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이들이 네가지 요인으로 정신적 심리적 행동이 나타난다. 각 유형별로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가지이상도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첫째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 유형은 아이들이 무슨 원인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유형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체질적인 요인

이다. 이는 갑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부모 혹은 조부모의 유전적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환경문제다. 환경문제는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받았거나 부모와 어린 시절 밀착 떨어져서 자랄 때, 그리고 이민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환경 등이다. 넷째 영적인 문제다. 정 신앙에는 영적인 부분을 무시해서 안된다. 신앙생활로 인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된다"고 말했다.

풀윤 상담가는 "아이들을 상담하다보면 발견되는 것이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주의산만증이다. 이들의

8-90%는 인터넷문제와 연관돼있다"고 언급한 후 "부모들이 인터넷을 끄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게 전생태에서 전략 없이 돌진하는 것과 같다.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이 아닌 인터넷 세계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무료이며 간식이 제공된다. 자리가 40명으로 제한된 만큼 한인가정상담소 측은 사전등록을 당부했다.

▲문의: (213)235-4848 김아림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남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2부: 오전 9:00, 11:00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388-1400, Fax: (213)388-0718 www.youngnak.com</p>	<h3>남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 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323)466-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남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성경연구: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 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아예배: 오후 7:30 평일예배: (월-토) 오전 9:00, 11:0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kp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p>	<h3>동양선교회</h3> <p>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뻗어가는 우리의 동행자를 위한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담: 박경희),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중앙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한글)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성일찬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l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남가주성령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태권도: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앨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m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월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아예배: 오전 11:00(월-토)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한글)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lacor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9</p>	<h3>토렌스조던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한글)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도지사 의무 방기’ 대 ‘종교적 신념 존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한라산신제’ 초헌관 역할 거부 논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한라산신제’에서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거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 지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반면 기독교계는 공직자도 종교적 신념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라산신제는 산신령에게 제주를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하는 제례의식이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지됐으나 2009년 주민들이 복원했고 2012년부터 제주도가 주관하고 있다. 초헌관은 나라의 제사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임시비술사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원 지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제관업무를 맡지 않았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 또는 귀신을 숭배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

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성공기원 한라산신제와 12월 제주도의 시조를 기리는 제사의 초헌관 역할도 거부했다.

이런 원 지사의 행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만큼 제주지사는 개인의 종교적 입장을 떠나 전통행사의 제관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해 한라산신제가 있을 때 도지사가 초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 지사의 행위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공직자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원 지사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6일 논평에서 “과거 고등종교를 갖지 못해 미

신을 숭상하던 시절의 제례를 복원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국대민안을 위해 기원하는 방법은 각 종교의 양식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다양하다”며 “그런데 산신제에서 초헌관을 해야만 공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독교학술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지사의 신앙적 소신은 귀감이 된다고 평했다. 김 원장은 “전통제례에 도지사가 초헌관 역할을 하도록 한 이 조례 조항은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공인이라도 개인 신앙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한라산신제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제례행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교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北정권에 순교당한 기독교인사 기리지” 순교자기념사업회 출범, 지역교회 순회 추모예배

‘북한정권에 의한 순교자기념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카페 다사랑에서 북한인권 및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념사업회 공동상임회장에는 김성호(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무지개캠프 이사장) 목사와 대환규(생명과인권사랑공동체 대표, 세계선교회 이사장) 목사가 선출됐다.

김성호 목사는 설교에서 “6·25전쟁 전에는 조만식 장로, 전쟁 중에는 손양원 목사, 전쟁 후에는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크리스천이 북한정권에 의해 순교당했다”며 “순교자를 추모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교회의 노력은 너무 미미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정기적으로 북한정권에 의한 순교자들을 추모하고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한국교회를 대

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각 지역 교회에서 순교자 순회 기념예배를 열고 관련서적 출판과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 등도 선보일 방침이다. 또 북한순교자연구소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술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대한민국미러연합, 무지개캠프 등 12개 단체이다.

출범예배에서 사회를 본 김규호(선민네트워크 대표) 목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투철한 신앙을 후세에 알리며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나는 죽지 않는다” ... 법정서는 “사실 아니다” 발뺌...네티즌 관심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이단 신천지의 실체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가 16일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하고 난 뒤 신천지의 충격적인 실체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고 난 뒤다.

특히 CBS가 지난해 보도한 이만희 법정 진술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만희는 자신을 육신이 죽지 않는 이 시대의 구원자이자 보혜사라고 평소 주장해왔지만 법정에서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고 증언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신천지 교주가 결국 신천지 교리 역시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 CBS의 설명이다.

C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만희는 소장에서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양,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신천지 홈페이지나 발전사에 공공연히 적시했던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한 약력도 부인했고, 육체영생에 대해 가르친 사실 역시 전면 부인했다고 CBS는 덧붙였다.

이만희는 1984년 신천지 창립이

후 약 10만 여명의 신도들을 이끌어 온 신천지 교주다. 이만희는 저서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시’ 등에서 보혜사, 약속의 목사, 대언의 증인이라고 자처했으며 ‘성도와 천국’ ‘계시록의 진상’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천지는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영을 막으려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져본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CBS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첫 방송 직전 이단 신천지가 법원에 낸 방송 금지 가져본 신청을 기각해 앞으로 모든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이단재심 검증위원단’ 구성기로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재검증 실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는 초교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단재심 검증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한기총 회원교단 안팎을 아우르는 9개 교단·단체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을 통해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제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9개 교단·단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한기총을 탈퇴했거나 행정보류 중인 국내 주요 교단이 포함됐다. 이단검증특위는 이들 교단

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7일까지 신학 교수나 이단문제 전문가 등 검증위원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교단이 특위의 요청에 응할 경우 해당 위원들은 검증작업에 착수해 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단검증특별위원장인 오관석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초교파 인사들을 통한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결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특별 검증 대상자들의 신앙고백 등 답변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류된 재외동포 임 목사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유엔도 임 목사 석방을 위한 국제활동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기록대한민국네트워크 건전신앙수호연대 국제인터넷선교회 기독교성크랭크 베데스다선교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 목사는 1990년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부임한 뒤 110여 차례 방북해 북한의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국수 및 라면공장, 백두산 들쭉농장 등을 세웠고 2013년에는 ‘북한고아를 위한 사랑의 동북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아펜젤러 · 스크랜턴 선교130주년 기념 기감 학술심포지엄 개최 “올해를 쇄신의 원년으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1858-1902)와 메리 스크랜턴(1832-1909)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16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들 선교사의 활동을 되새기며 올해를 쇄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심포지엄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한국 감리교회 개척선교사의 영향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행사였다. 김철성 목원대 교수는 ‘한국 감리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아펜젤러 선교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아펜젤러는 구령(敎靈)의 열정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조선 선교에 나선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 선교 전략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아펜젤러는 이들에게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선교사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면) 그들을 달래면서 결국 당사자를 스스로 갈등을 풀어가도록 지도력을 발휘했다”면서 “아펜젤러는 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펜젤러는 한국인들을 배려하며 죽는 날까지 사랑한 착한 사람”이라며 “아펜젤러의 뜨거운 열성, 따뜻한 사회성, 냉철한 시대정신인 한국감리교회에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회정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그녀를 기억하라: 감리교의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교육과 여성선교에 주력한 스크랜턴의 삶을 재조명했다. 하 교수는 “스크랜턴은 53세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가 일군 성과는 얻을 수 없

인이 시작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넓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스크랜턴과 동료들의 희생과 열정에 감동하며 그 열매에 탄복했지만 그동안 이들의 삶에서 어떤 역사적 교훈도 진지하게 읽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매클레이(1824-1907)의 선교 활동도 다뤄졌다. 매클레이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보다 1년 앞선 1884년 입국해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이덕주 감신대 교수는 “매클레이의 선교사역’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매클레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복음화에 매진한 인물”이라며 “특히 그는 한국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개척자였다”고 평가했다.

심포지엄에는 기감 관계자와 감리교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조경열(이음교회) 목사가 맡았다. 기감은 다음달 6일 같은 장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선교의 미래적 방향’을 주제로 2차 학술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교회가 사회 갈등·대립 치유를” 박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서 당부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국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회선을 다해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해와 단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통일을 향한 교회의 기도와 염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경에서도 70년은 의미 있

고 중요한 해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해방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한국 교회의 기도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세대와 시대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 가슴에 전해져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도약과 정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제한 뒤 경제 해소와 경쟁력 확충을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는 중심이 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백주에 테러를 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련을 한마음으로 이겨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다닐 수 있었듯 우리도 지금 갈등과 분열의 질곡을 극복해낸다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로 나아가 수 있다”고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조찬기도회에 3년 연속 참석했다. 기도회에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인 감경철 장로, 국회조찬기도회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최상규 국민일보 사장을 비롯한 정치·경제·종교·언론계 인사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은퇴목사들 함께 모여 예배 ‘백세교회’ 예장백석 교단 설립예배...설교기도 돌아가며 담당

“비록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복음사역에 은퇴란 없습니다. 청춘의 심정으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 서상기 원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동남노회 소속인 ‘민족성전 갈보리산기도원(원장 박인숙) 부설 백세교회 설립예배’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진흥빌딩에서 열렸다.

백세교회 음재용(예장백석 동남노회장) 담임목사는 인사말에서 “마땅히 예배드릴 곳이 없는 은퇴 목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백세교회를 설립했다”며 “앞으로 은퇴 목사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절별 잔치와 국내외 여행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 목사는 은퇴 목사와 사모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공동체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예배공간을 무

상으로 제공한 진흥문화 회장 박경진 장로와 은퇴 목사 복지증진에 힘쓴 서상기 원로목사에게 각각 감사패와 꽃다발이 전달됐다.

백세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다. 모든 회원이 예배 설교와 기도, 축도 등의 순서를 번갈아 맡는다. 교회제정은 각자 형편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날 말씀을 전한 예장백석 전 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이 된다”며 “진짜 신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이 자리에서 진리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예장백석 사무총장 이경옥 목사, 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 양원준 장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전 총회장 이상모 목사, 백석대 총동문회장 정용

범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 권면의 순서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날 실행위원장 임원순 목사는 축사에서 “일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고 애쓰신 은퇴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은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한국교회에서 은퇴 목사들은 일종의 ‘소의 계축’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목회자들의 은퇴 후 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950-90년대 민족복음화의 초석을 다진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 기독당 대표 민승(76) 목사는 “갈데없는 은퇴 목사들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한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노(老) 병사’들은 반쯤없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헌신하고의 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개척·미자립교회 지원방안 통과 등 나성, 17-18일 천안서 제60차 총회

대한기독교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총회감독 한기동 감독)는 17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에서 이를 일점으로 제60차 한국총회를 개막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첫날 회의에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과시켰다. 개척교회의 경우 교회 창립 후 만 3년 이내는 ‘개척 1단계’, 만 5년 이내는 ‘개척 2단계’, 만 10년 이내는 ‘개척 3단계’로 정해 각각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교회자립위원회를 신설해 개척 후 5년이 지난지만 미자립 상태로 있는 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총회 국내 선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전국 302개 교회 400

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30분 개회예배로 문을 열었다. 한기동 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데이빗 뷰직 국제나사렛 중앙감독은 ‘교회의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뷰직 중앙감독은 “전 세계 나성 교단 소속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그간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의 불을 받아 차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설교했다.

한 감독은 개회예배 이후 진행된 총회 감독보고에서 임기 3년차를 맞는 소회를 전했다. 한 감독은 “교단 내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목회와 선교를 위해 땀 흘린 국내의 동역자들 덕분에 2년간 감독직

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어느 때보다 목회하기 어려워진 게 작금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현재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 임원들도 나성 총회를 찾아 축사했다. 이종복 예성 총회장은 “성결로 하나 된 형제인 나성 교단의 제60차 한국총회를 축하한다”며 “이런 총회를 계기로 나성과 기성, 예성 등 성결교회 형제 교단이 공고히 협력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한 축이 되자”고 전했다.

유동선 기성 부총회장도 “성결 복음의 위대한 기지 아래 한국에 나성, 기성, 예성 세 형제 교단이 세워졌음을 잊지 말고 더욱 긴밀히 연합해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다.

나성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오후 7시30분부터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선교 소식

GMPAmerica

주안에서 동역자된 후원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는 달라스로 이사 온 후 처음 겨울을 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들어온 후 줄 곳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다가 처음으로 뻘(?) 여름을 달라스에서 보내고, 이제 제법 겨울 비슷한 계절을 몸소 겪으며 계절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GMPAmerica 선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세계기독교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였고, 선교지가 'sending country'(파송국)들과 'receiving country'(피선교국)들로 구분되던 시대에서 이제 지구촌의 모든 곳이 '선교지'(mission field)화 하고 있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는 이전의 패러다임과 사상의 틀로는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기독교의 판도, 새롭게 판을 짜야 할 선교적 환경은 저희 GMP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는 미주지역의 선교후보자들과 한인교회들을 섬기고자 다양한 훈련내용을 정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미주

GMP 선교회가 변화하는 세계를 적절히 이해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으로 전 세계의 열방가운데 나아가 선교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본부와 지부에서 섬길 선교사님들을 recruit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선교대국이긴 하나, 선교선진국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23,000여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할 만큼 선교에 열정을 갖고는 있으나, 온전한 선교를 위해 필요한 선교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는 너무나 미진합니다.

특히 선교본부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섬길 본부 선교사들의 사역은 해외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본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동원자, 선교 훈련자, 재정담당자, 멤버케어 담당자(선교사 부부, 자녀 care), 웹사이트 관리 및 미디어 담당자, 선교관 관리인, 드라이버, MK 수행자 등등

적절한 분들이 본부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해외선교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일과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상처 받고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국내에서 선교교육과 상

담 등으로 지역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본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본부에서 이상의 다양한 부분에서 섬길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해외 선교지와 국내교회들 간에 아름다운 소통과 동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은 선교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열심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을 3가정 정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지역교회 평신도들의 선교적 영성을 교육하기 위해 미주 GMP가 준비한 'Missional Leadership Training Course'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는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직업 선교사들)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자신의 직업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선교적 영성과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몇 개의 지역교회에서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유익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LA의 남가주 든든한교회, 달라스 세미한교회, 달라스 '미션달라스'를 통한 목회자를 위한 선교적 영성훈련, LA의 동양선교회, 그리고 남가주 선련드의 온누리교회 등지에서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미주GMP 선교회는 MLTC 선교훈련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교회들이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 열방구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길 최고의 선교사후보들을 만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달라스로 본부를 이전한 미주GMP가 풍성한 교제, 섬김,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선교공동체가 되도록

2. 미국의 선교본부에서 다양한 은사로 섬길 본부선교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저와 동역할 수 있도록

3. 꼭 필요한 지역교회들이 MLTC 선교훈련코스를 통해 새로운 '선교적 영성'을 지닐 수 있도록

4. 해외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국제적 리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5. 원대한 비전과 성육신의 낮은 자세로 본부대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가정의 될 수 있도록- 재정, 건강, 성령충만

6. 대학에 간 큰 아들 Daniel이 은혜와 지식이운데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연락처:gmpfom@gmail.com

이준호/지연/정현/재현 선교사 가정 드림

고난주간 · 초대사

십자가 조선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조선 하늘 십자가 양화진에 걸리었네 죽어야 사는 십자가 외롭기도 하여라 도포 입은 나그네 십자가로 나아오니 겨레의 아픈 한들 십자가로 승화되네.

장안을 밝힌 십자가 빨갛기도 하여라 하늘 사람 달려죽어 땅의 사람 살리었네 물동이 인 아나네 옥함을 깨뜨리니 삼천리 금수강산 십자가로 꽃피웠네.

밤하늘의 십자가 헤아릴 수 없어야 십자가 없는 십자가 금관의 예수 아니던가 땀방울이 핏방울 된 십자가 어디에서 찾을고 골고다의 십자가 탄식소리 들려오네.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 누굴 위한 외침이던가 십자가로 이제 하늘 문 열렸으니 남북으로 동서로 휘장을 찢기우고 십자가 조선 하나되어 통일한국 염원하세.

바티칸, IS 테러 공격 위협으로 비상경계 중!

(2면에서 계속)

그런 테러 위협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경찰을 거리에 많이 배치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은 IS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1.3%만이 '테러'를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들은 그보다 실업, 부패, 경제, 세금을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 '환경 악화'만이 '테러'보다 더 낮은 위협으로 간주됐다. 이탈리아 신문 리베로의 편집부장 프란체스코 보르고노보는 이렇게 말했다. "IS는 허풍쟁이기 때문에 비웃어도 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테러 대응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다치는 위협이 이민이다. 이민 문제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는 IS를 비웃지 않는다. 최근 사르디니아 마그리스 로마-피렌체 국제대학 총장은 리비아 출신 IS 동조자들의 위협을 경계한다. 그 학교는 세계 각국 정부에 대테러 전술과 인질협상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마그리스 총장은 이탈리아 관리들이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상황과 테러리스트의 이탈리아 침투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근 IS를 지지한다고 선포

한 리비아 민병대가 늘었다.

이탈리아 정보기관은 의심되는 IS 지지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감시를 강화했다. IS의 선전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탈리아 정부가 왜 노심초사하는지 알 수 있다.

IS를 지지하는 블로거 아무 이름 알-리베는 최근 이렇게 썼다. "이탈리아는 작은 보트로 도달할 수 있는 유럽 남부에 긴 해변을 갖고 있다. IS가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대열에 섞이면 유럽 남부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보기관 소식통은 이런 위협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입국 서류를 갖추고 도착하는 외국 지하디스트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였다.

"테러리스트가 감판도 없는 위험천만한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가려고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 그들이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이탈리아에 침투하는 테러리스트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전자 도청보다 유럽 전역에 보안요원을 더 많이 투입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것이라고 그 소식통은 강조했다.

그러나 마그리스 총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리비아 상황과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이탈리아 정부의 지금 같은 대응이 현재로서는 최선이지만 이탈리아는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숨기는 데 능숙하지 못한 젊은

IS 조직원들을 색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마그리스 총장은 말했다.

아울러 더 젊은 요원, 특히 여성 요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가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 젊은 여성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성심가톨릭대에서 위기관리를 가르치는 마르코 롬바르디 부교수는 최근 이탈리아가 어느 때보다 대테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은 소극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난민에 동조하는 좌익과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 양쪽 모두를 의식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롬바르디 부교수는 "이탈리아 정보당국이 외국인 지하디스트 50-60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말만 앞세울 뿐 테러 예방을 위한 법 집행엔 소극적이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위협이 닥치고 있지만 정치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것처럼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새로운 테러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롬바르디는 우려한다.

어쩌면 제2의 파리 샤흐리 엠포테라가 로마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교황도 다시 방탄차를 타야할지 모른다.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CJ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라틴어인, '메멘토(memento)'는 기억하다(remember), '모리(mori)'는 죽음(to die)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좀 아프면서, 엠블런스에 실려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 "여보! 여권은 여기 있고, 각종서류는 저기 있으며..." 그런데 가까스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진단은 오히려 흉부선교사가 더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에 "비강염"인데, 남편은 더 위험한 "폐렴"이라고!

헝가리 병원은 '일차, 동네 보건소'에서 흉터의 소견을 받은 뒤 '2차 구역 병원'으로 갑니다. 응급이나 구역병원에 시설이 없을 경우 그다음 순으로 '국립병원'에 가야합니다. 그런데 그 흉터의 진료와 소견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맞춰서 가면 의사는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는 환자는 많고, 네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 더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면서 담배를 피우니... 오! 내 사랑하는 헝가리어...! 렌트겐(X-Ray)을 찍으라는 소견서를 받아 구역병원에 갔더니 3개월 후에 오라고 하네요. ㅋㅋ

그래도 저희부부 매일 아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Walking Prayer(걸으며 기도하기)"는 이어갔습니다. "약 먹는 대신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으니..."

일주일애 3일 간의 급식사역도 멈춘 적이 없지만, 두 집시 슬럼가의 가정예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슬럼가인 '킨 거리'와 '회쉬 거리'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곳 공기가 참기 힘들었습니다. 담배연



기도 그렇지만, 난방을 위해 부엌의 가스 레인지에 불을 붙여놓으니 가스 냄새가...

한번은, 병원진료 관계로 이틀간 아침 "Walking Prayer"를 못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 사는 중국인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궁급했다고 합니다. "진 무스(김 목사), 쉬 스무(서 사모)에게 무슨 일 있어? 많이 아파?"

그 다음 날 아침 저희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중간 중간 서서 기도하는데 자전이 우리를 부릅니다. "야미 야미!" 우리가 중국말을 몇 마디 밖에 못하니 그냥 의성어나 몸짓, 표정으로 통합니다. 들어와서 먹고 가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에 못이기고, 과분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너희는 헝가리인 노숙자와 짐시 먹이잖아. 진 무스와 쉬 스무는 우리가 먹이겠어."

가끔, 영어를 하는 소년이 와있으면 소동을 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통성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렇게 꼬박 한 주장을 기도하고 있는 저희를 불러 건강식 우동을 먹여 저희의 건강을 위했습니다.

그러게 흉부선교사가 의사 진료를 받았는데 폐렴이 괜찮아졌다고 감기약만 좀 더 처방해줬습니다. 내일 또 의사 진료를 가야합니다. 오늘 아침도 잠시 서서 기도하고 떠나는데 자전이 또 부릅니다. "진 무스! 쉬 스무! 이거 중국 약초로 만든 건데, 기관지와 폐에 좋으니 드세요." 감기가 전염될까봐 거절해도 괜찮이라며 끝까지 불러들여 먹이고, 이것저것 싸서 보냅니다.

사실, 저희가 "Walking Prayer"를 할 때 반드시 자전 집 앞에서 기도하고 지나가

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테러가 세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육백만 포린트(약 삼천만원)를 빼앗겼고, 두 번째는, 돈이 없었나봐 괴한이 쇠로 자전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미간까지 꿰뚫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집에 있던 언니 리전이 같은 괴한에게 맞아 코 밑을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히 웃으며 말합니다. "강세주(하나님께 감사!) 강세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유래는 로마 공화정 시절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장군의 개선식에서입니다. 개선장군은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백성들의 '살아 있는 신'처럼 환호를 받지만 그 영광스런 전차에는 비천한 노예 한 명이 탑승하여 개선식 동안 뒤에서 끊임없이 경고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 개화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죽음, 헌신을... '헝가리 선교사인 우리 부부는? 나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환희의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헌신과 수난, 죽음...! 사실 "메멘토 모리"의 유래는 므두셀라에서부터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마26:18) 헝가리 흉부선교사, 김홍근&서명희 드림.

<4면에서 계속>

누가복음 23장 39-43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비방을 하자, 또 옆에 있던 사람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강도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40절)라고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40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41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란의 아브디니 목사, 감옥에서 아들에게 편지

17일은 제이콥(야곱)의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제이콥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란의 감옥에 수감된 사이트 아브디니 목사의 아들이다. 아브디니 목사는 아들이 보낸 생일 파티 초대장에 답장을 보냈다.

아브디니 목사의 법률고문인 미국법과정의센터(ACLI)에 따르면 제이콥은 올해 조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했다. 제이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저의 7번째 생일에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콥에게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불행하게도 아브디니 목사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조금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한 것을 하고, 범한 죄에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다리가 부러져도 열 번은 부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 번 매맞아 죽을 인간이고, 지옥에 갈 인간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형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가 헤아릴 수 없어도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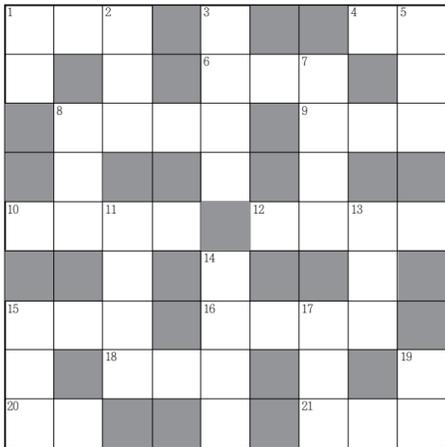
현재 아브디니 목사는 교도소 내 구타로 생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아브디니 목사는 약 3년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4세 때 헤어졌던 아들은 이제 7세 생일을 맞게 됐다.

그가 아들의 생일 초대장을 받고 쓴 답장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아브디니 목사는 이란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과 전세계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온라인 청원 사이트(<http://beheardproject.com/saeed>)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7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열매 따위의 날개(사48:19).
- 근근이, 가까스로(신10:22).
- 국가의 주권을 가진 사람(합1:14).
-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고사성어).
- 초상이 난 집(전7:2).
-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7인중 다섯 번째 하신 말(요19:28).
- 한국이 일본에 합병될 때의 마지막 왕(국사).
-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인데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보고 장차 전 세계에 흥년이 들 것을 예언(행11:28).
- 매우 무지하고 우직스러움(명사).
- 로드발 사람 마길의 부친(삼하9:5).
- 므낫세의 장자인데 요단 동편 길르앗의 대부분을 저의 자손이 차지했다(민26:29).
-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친히 사권 교우이다(롬16:9).

<세로 푸는 열쇠>

- 트리폴리 북쪽 20km 지점의 베니게 동네(창10:17).
- 2월에 해당. 혹은 당당반 반(대상27:4).
- 자주빛 나는 명주를 파는 사람(행16:14).
- 찬송가 559장의 주제. ~예수만 섬기는 OOO.
-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고사성어).
- 삼국지의 관운장이 뒀었다는 말 이름(명사).
- 솔로몬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세겜에서 즉위(왕상14:30).
-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두어 거칠어진 땅(겔29:10).
-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네 번째 이렇게 두 번 불렀다(삼상3:10).
- 바울의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기고와 같이 디도에게 그의 서신을 가지고 갔다(딤후3:12).
- 예루살렘의 한 지명으로 상인들이 많이 살던 곳(슌1:11).
- 물이 흘러 나가는 곳(삼하5:8).

십자말 정답

무	코	우	지	니	모
번	니	무	하	조	오
모	하	야	미	루	은
무	지	무	약		
우	모	하	조	야	조
	조	니	루	루	
이	코	지	야	조	조
무	조	하	야	조	코
니	가	조	루	루	하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 그리스, 로마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 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이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u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 * 언제든지 문의하시든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정기 한인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정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4)

오늘은 시편 78:1-8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총 72절로 이루어진 제법 긴 시가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차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속적인 사랑과 이에 그 자손들은 그러한 선대의 역사를 되풀

연적으로 그 공동체의 역사를 전수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전수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조들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조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 옳은 것을 전하는 일을 넘어서서,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오히려 강조해서 전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경우라면 선조의 과오를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더라

는 한인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기초이지만, 오늘은 그 신앙전수의 특별함, 즉 과거의 과오를 숨김없이 후대에 전수한다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한 교육의 성경적 기초 중 하나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우리 한인 신앙공동체가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허물과 잘못과 과오를 용기 있게 대면하고 정면 돌파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인 신앙 공동체에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시편 78:1-8 통해 진솔한 정면돌파로 신앙 전수 교육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 세대 잘못 되풀이 않도록 경계

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육의 기초는 바로 이 시편의 서두인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두 부분은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핵심은 단연 “후대에 전한다(transmitting to the next generation)”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바는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그 후대에 전해야 할 바는 바로 “여호와와 영예, 능력, 기인한 사적”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여호와께서 배푸신 구속의 역사와 이를 통해 드러난 그의 영광과 권능을, 그 다음세대에게 알리고 또 교육시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교육을 통해 이를 후대에 전하여 대대손손 알도록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로서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 신앙공동체의 신앙전수의 특별함과 그 특별함이 주는 절실함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전수는 필

도, 좋은 점을 부각시켜 과오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강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 전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진솔한 정면돌파가 그들의 신앙전수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자녀들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려는 진솔한 의지와 절실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전수의 특별함은 선조들의 과오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을 설명하여, 여호와께서 배푸신 구속의 역사와 이를 통해 드러난 그의 영광과 권능을, 그 깊이와 그 위대함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는 콘텍스트의 역할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는 다양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특별하고 절실한 신앙 전수의 양상을 우리 한인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기초로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려하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 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민자로서의 한인 신앙공동체에게 선조들의 신앙과 문화 및 전통을 다다음세대에게 전수하는 일만으로 우리 다음세대의 신앙적 성숙과 그들의 건강한 정체성, 한인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및 존속 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신앙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냥 그렇게 털어버려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세대들은 같이 모이기로 하나님을 아프고 슬프게 하지 않도록 많이 부끄럽지만, 후대들이 실패도 하겠지만, 한인공동체가 그간 행한 불순종과 과오와 실수 등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숨김없이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전 세대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 다음세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과거의 불순종, 과오, 그리고 허물 등이 포함된 역사를 모두 전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놓지 않으셨고, 또 다시 회복하시고 아픔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축복을 베풀어주셨던 역사를 함께 전수할 수 있게 하므로, 또한 그 모든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므로 더욱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교회의 구원(엡4:1-16)찬347장

원시복음인 창3:15에 예시된 대로 구원이란 사탄과의 분리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임이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 납니다. 첫째, 어떤 연합인가? 1)그리스도 안에 넣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이고 2)그 연합은 교회로 성취되는 일이며 3)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성령, 한 주, 한 아버지, 한 믿음, 한 세례로 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인 목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 사역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각기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되지만 연합을 위해 나가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연합된 신부입니다. 이런 성장은 하나님의 총명으로 채워질 때만 이뤄지며 그 일을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화 신앙의 목표(엡3:19하)찬466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보이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총만한 존재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총만한 것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로 신자는 과거가 처리됐고 현재 부요자로, 장래에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총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총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총만한 존재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총만한 것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로 신자는 과거가 처리됐고 현재 부요자로, 장래에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 그리스도인의 삶(빌2:11-18)찬364장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다각도로 이해한 바울은 오종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두렵고 떨림의 생활입니다. 이는 경외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두루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구원을 이루려는 진행형의 삶입니다. 다 이뤘지만 이루지 않은 사람 같은 긴장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자체가 생명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생활입니다. 소원은 의지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성령의 소원과 비전으로 총만해 그것의 이끄심을 받았 습니다. 넷째, 빛이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빛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밝히는 생활입니다. 말씀으로 전이화된 삶 곧, 모든 사상과 이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가리킵니다.

목 그리스도 안의 보화(골2:19)찬408장

빛으로 살려면(엡6:1-9)찬259장

정적인 지식과 동적인 지혜, 그 둘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진리 지식은 지혜를 낳고 진리 지혜 역시 더 나은 지식과 확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을 수 있고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합니다(골2:19). 둘째, 잠언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 경

외로 요약되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완 성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잠언의 지혜가 머리 없는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지식과 지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기에 영생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조되어 왔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비밀처럼 가려져 진실되어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얻은 진리 지식은 생명력이 더 넘치게 됩니다.

금 변화의 삶(살전 5:19-22)찬484장

그리스도 안의 변화된 삶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복음 중심한 열매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에 네 가치를 권합니다. 첫째, 불타오르는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소원을 주심으로 이끄십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인 예언을 절대 법칙으로 삼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종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 돼

야합니다. 셋째, 모든 일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는 영적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절 대기준인 성경에 밝아야하고 구체적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면의 거룩은 외면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의 형식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윤리적 생활에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토 그리스도인의 말(엡5:4)찬213장

그리스도 밖에서 어두웠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 안에서 자기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 빛은 먼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는 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누추하고 어리 석고 희롱하는 헛된 말이 착한 말, 옳은 말 그리고 진실한 말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 들은 모두 어둠 속의 실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빛의 사람은 감사의 말로 나

타야 합니다. 이 감사가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평할 자라라도 감사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가진 사자의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공통된 경험 이어야 합니다. 입술의 부정을 발견하고 그 절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령 아래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h4>강남중앙감리교회</h4> <p>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h4>군포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로 870-10호</p>					
<h4>금관교회</h4> <p>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g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양주동 340-1(131-231)</p>	<h4>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3389, Fax. (031)977-8382 (우)110-831 동탄신도시 1단지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h4>로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h4>새에덴교회</h4> <p>담임목사: 소상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후 5:00(매일) (철민을 위한 헌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h4>성문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p> <p>Tel. (02)264-2648-3191~3, (02)2646-3184 서울시 강북구 북촌2동 520 (116-808)</p>	<h4>성실교회</h4> <p>담임목사: 김경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3 (142-073)</p>	<h4>성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토요일은 없습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부3동 713-26호</p>
<h4>수정교회</h4> <p>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p>	<h4>승등교회</h4> <p>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마루 137번지</p>	<h4>시온소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p>	<h4>신길교회</h4> <p>담임목사: 이산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h4>신천교회</h4> <p>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강북구 개포동 17길 29(강일동) www.shincheon.org</p>	<h4>신촌교회</h4> <p>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h4>안암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마루동 제기동 146-7</p>
<h4>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원성구 양곡로 415 www.yangok.org</p>	<h4>왕성교회</h4> <p>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h4>장위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9:30 금요성가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h4>주안교회</h4> <p>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403-838)</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p>	<h4>청주주님의교회</h4> <p>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h4>충신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2015 가을학기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개교기념 교육 컨퍼런스 Educational CONFERENCE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박희민 목사



글로벌선진학교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

전문 강사 세미나
학교 투어
Washington D.C 무상 투어
기념품 증정
숙식 무료 제공

철저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기반으로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학생으로 양성하여
전세계 명문대학으로 진출시킨
한국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현대교육의 본고장 미국동부 펜실베니아로
진출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불러일으킬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85에이커(약 23만평) 80동의 빌딩은
최고의 명문기숙학교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교육시설입니다.



교육빌딩(Educational building)

도서관(Library)

식당/카페테리아(cafeteria)

실내체육관Gymnasium

볼링장(Bowling alley)

기숙사(Dorm)

운동장(Football field)

주 최	사)글로벌교육선교회 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일 시	2015년 4월13일(월)-16일(목)
장 소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3583 Scotland Rd. Chambersburg, PA 17254
참 가 비	참가비는 없습니다
문의전화	미국캠퍼스교감 좌수아강 717-830-9356 교육지원팀장 공안나 972-878-3533 홍보행정담당 송하은 614-725-6632 미주성시화본부 이성우 213-675-6493

연 사



미주성시화본부장
이성우목사



청소년 코칭
서우경박사



다문학과교육
김경옥박사



"1달러의기적"저자
최향숙사모